

여름철 지독한 악취로부터 시민 보호

전주시, 내달 중 리사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 계절성 폐기물 배출요령 집중 홍보·축산시설 구조개선

전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악취와 대기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효자동 삼천둔치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결을 위해 리사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 공사기간을 단축, 오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음식물쓰레기가 고온다습

한 기온으로 인해 빠른 부패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만큼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대한 살균·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용기를 수시 세척하는 등 청결을 강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 배치된 개별용기 6만9600개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를 통해 70L 이상 대형용기부터

순차적으로 살균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체적으로 살균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북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한 축산시설 구조개선사업, 팔복동 공업지역 대기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등 각 분야별 악취저감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예산이 확보된 김제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제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제시에 통보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혁신도시 인근 축산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시설 71개소에 대해서는 7월과 8월 중 전북도, 김제시, 원주군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7월부터 김제시 용지면 소재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 140억의 예산을 투입해 △인간분무시스템 설치 △가축분뇨 공동물원화시설 등

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인 악취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제시에 통보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혁신도시 인근 축산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시설 71개소에 대해서는 7월과 8월 중 전북도, 김제시, 원주군과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7월부터 김제시 용지면 소재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 140억의 예산을 투입해 △인간분무시스템 설치 △가축분뇨 공동물원화시설 등

퇴·액비화 시설에 대한 시설밀폐 △탈취설비 설치 사업 등이 추진되는 만큼 혁신도시 악취 해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악취는 단순한 시민 불편사항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환경 유해요소인 만큼 단순한 악취 해소를 넘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악취발생저감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공공성의 재구성' 이곳에서 길 찾아

전국 자봉센터 컨퍼런스 오늘까지 전주서 개최

'공공성의 재구성, 자원봉사 성장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4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PLUG-IN이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주에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관계 공무원 등 463명이 참가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컨퍼런스는 자원봉사 관련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먼저, 안승화 회장은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변화의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간조직의 연계와 협업, 즉 '공공성의 재구성'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공성의 재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문화활동 가를 비롯 다양한 시민이 재능으로 참여하여 선미존을 문화적 대상으로 탐방하고 있는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주요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주를 비롯 5개 센터 관리자들은 평소 자신의 업무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논문을 작성, 연구, 발표하는 실무세션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교육

전주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공간정보시스템(GIS)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7월 고도화완료 예정인 공간정보시스템은 시가 국내 지자체 최초로 오픈소스를 활용해 구축한 것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설물 편집 기능을 구현하고 환경·복지·부동산·건축·도시계획 등 데이터 연계·공유로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 업무 융합 및 공간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이날 교육은 신규공무원과 공간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기능설명 및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간정보 시스템 사용법 △정시영상 활용방법 등 3차원 공간정보 활용 전반에 관한 교육 △내만의 업무지도 및 공간자료 분석 등이다. 시는 지적민원, 재산관리, 도시건축, 산림·농지관리 등 각종 인·허가 부서를 중심으로 전주시 전체공무원의 60%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중인 만큼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 및 대민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후명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업무 담당자들이 공간정보기술을 익혀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공간정보 기반의 사업이 창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와 전북은행은 27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김성철 부행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전통한지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근로자 오늘까지 파업'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 지연 안내

전주시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주)사람과환경, 호남R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파업한다.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은 민주노동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폐지·직접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등의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이틀간 전주시내 재활용품 수거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각 대행업체의 관리인력과 시 자체 인력 등을 투입, 자체 비상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2일 이상 파업이 계속돼 수거업무에 지장이 발생되는 경우 대집행을 통해 수거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이물질이 묻은 비닐 등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들은 철저히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29일 이후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 차질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지만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배출감량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비브리오팀 의한 오염 우려 완산구, 다소비 수산물 점검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집중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전주시 완산구는 최근 해수 온도와 기온 상승으로 비브리오팀 등에 의한 수산물의 오염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팀, 중금속 등 현장 신속 수거 검사 ▲비브리오팀 예방 홍보 등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27일 객리단길 상생협약 참여건을 중 하나인 '태권비어'에서 객리단길 5개 건물주와 임차인, 중앙동상가번영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동참

전주시, 객리단길 건물주·임차인 등과 상생협약 체결

전주객사길(객리단길)에 상권이 되살아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전주시가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시는 공공인프라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객리단길 상생협약 참여건 중 하나인 '태권비어'에서 객리단길 5개 건물주와 임차인, 중앙동상가번영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영세상인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건물주들은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적정 임대료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시는 공공인프라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객리단길 상생협약 참여건 중 하나인 '태권비어'에서 객리단길 5개 건물주와 임차인, 중앙동상가번영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영세상인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건물주들은

'학력위조' 군산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학력을 위조한 전북 군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시법 제3형사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숙(62·더불어민주당) 전 군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이 학력을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위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미지 파일을 경찰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시의원이 학력을 위조해 유권자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 후 김씨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전직 유도선수 성폭행 전직 코치 징역형 구형

학력을 위조한 전북 군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시법 제3형사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숙(62·더불어민주당) 전 군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에 편입하고, 이 학력을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위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미지 파일을 경찰에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시의원이 학력을 위조해 유권자를 속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김 전 의원은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 후 김씨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전직 유도선수 성폭행' 검찰, 징역 10년 "죄질 불량"

검찰이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코치 A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계

전직 유도선수 성폭행 전직 코치 징역형 구형

획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전북 고창군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강석훈 기자

치매 아내 간호하다 살해 80대 남편 징역 3년 선고

치매를 앓는 아내를 간호해 오다 질병에 지쳐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살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8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경 군산시 흥남동 자택에서 아내 B모(82)씨를 흉기로 찌르고 문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3시간 뒤인 이날 오전 5시경 유자를 작성한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가 아내 말 없이 흐느끼자 불길한 예감을 느낀 아들이 A씨 자택을 찾아와 현장을 목격,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이 도착한 당시 A씨는 B씨의 시신 곁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또, 그의 유서에는 '너무 힘들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아내가 거절하자 화기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어 요양병원 입원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지병이 있어 병 간호를 계속하기 힘들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12년부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만취 소방관 난동 출동 경찰관 폭행

만취한 소방관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13분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모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전북대병원 파킨슨병 강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7일 분관에서 '파킨슨병'을 주제로 한 공개강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킨슨병 환자 및 가족과 시민 200여명이 참가한 공개강좌에서는 신경과 서만욱 교수의 강의로 파킨슨병의 개요와 치료, 예방방법 등 파킨슨병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자가 추가적인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등 열린 강좌로 진행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서만욱 교수는 "파킨슨병은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법은 없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른 약물요법과 운동요법, 채식 위주의 식단 등을 통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질병의 진행을 막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이 약에만 의존할 뿐 증상을 극복할 지식과 의지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강의를 통해 파킨슨병을 치료에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